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vol.394
2018.02.

법원
사람들

하루하루

심판대상에
신방이가득
배운 얼굴 모여
이야기 가득





SECTION 1 + 내일을 위한 소통나누기

- | | |
|--|--|
| <p>04 프롤로그
천상병 시인과 의정부</p> <p>06 법원 그곳
의정부지방법원</p> <p>10 공감
명절증후군 예방을 위한 비책 나누기</p> <p>12 감성충전 행복투어
하늘빛 닮은 의정부의 겨울 속으로</p> | <p>18 나의 일 나의 삶
여기까지 오기까지</p> <p>22 테마가 있는 글 1
당신의 회계소는 어디인가요</p> <p>28 테마가 있는 글 2
브라보 마이 라이프</p> <p>32 법원으로의 초대
꿈의학교 '청.와.대' 대법원 견학</p> <p>34 조사심의관 코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너무 식사하신가요?</p> |
|--|--|
-
- ## SECTION 2 + 함께하는 행복나누기

16 핫이슈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

38 현장 속으로
제18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CONTENTS

Supreme Court of Korea 2018. 02.
vol.394

- 40 스타일링룸
올해는 좋은 일 가득, 행복 예감_안종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실무관

SECTION 3 + 정보가 있는 공감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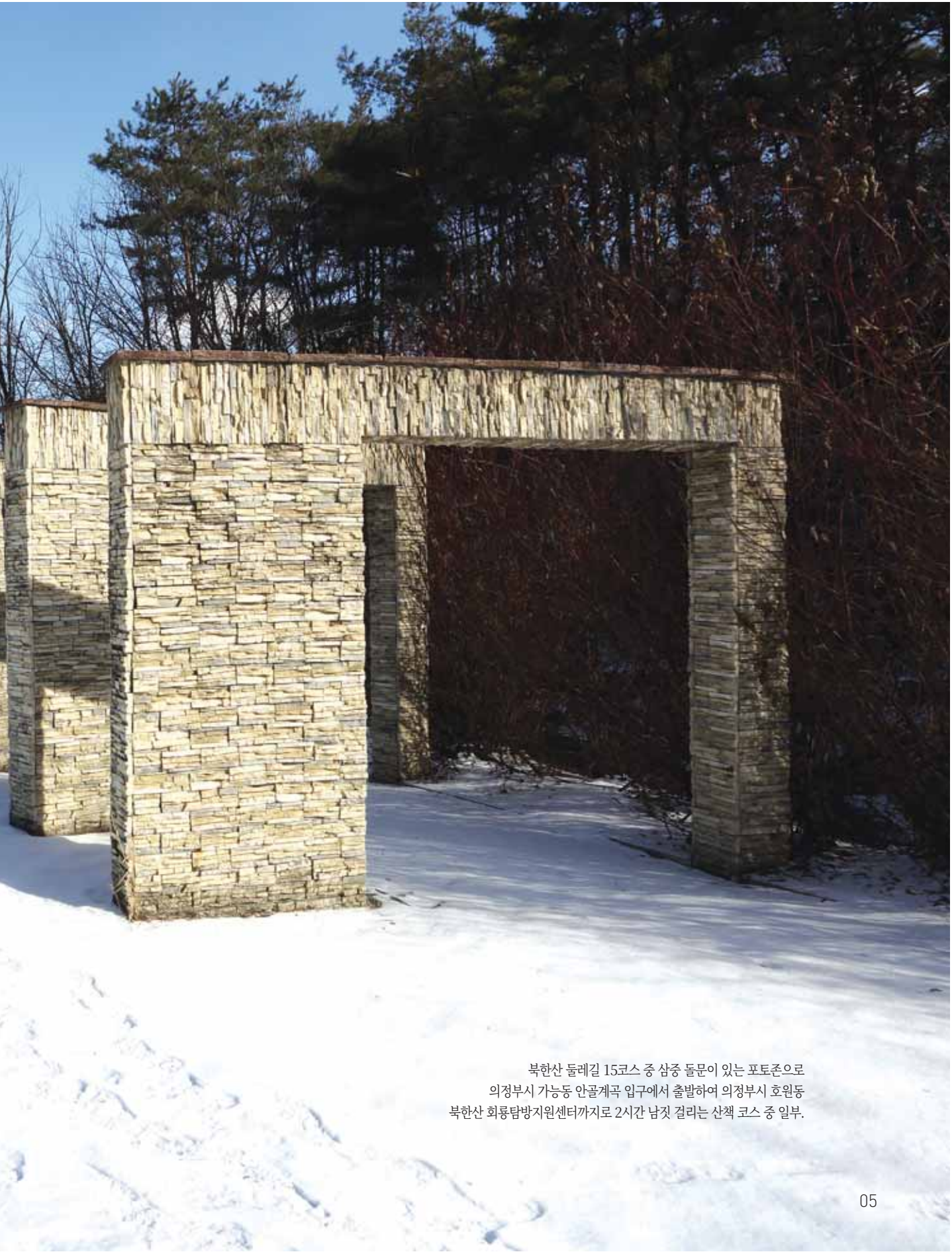
- 44 그 사람과의 인터뷰
가나에서 온 서울 오빠, 오철희_방송인 샘 오취리
- 48 건강칼럼
겨울철 달갑지 않은 손님, 독감
- 50 트렌드에 주목하라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평창동계올림픽 관전 포인트
- 52 법원 NEWS 54 공감우체통 55 마음의 편지

통 권 394호
발 행 인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발 행 일 2018년 2월 1일
편 집 인 공보관 조병구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이종표
편집기획팀 김태욱, 송소현, 이경미
발 행 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 화 02)3480-1456
팩 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기획·디자인·인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천상병 시인과 의정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시작하는 [귀천]의 천상병 시인은 의정부 수락산 자락에 머무르며 그의 시어처럼 ‘아름다운 소풍’을 살다 떠났습니다. 시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는 시인의 이런 맑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소풍길’이라는 산책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인의 소박한 삶을 닮은 정감 어린 풍경들은 목적지를 향해 걷던 잔걸음을 잠시 쉬어가게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이 많이 분주할 때지만 근처 작은 둘레길을 찾아 산책하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둘레길 15코스 중 삼중 돌문이 있는 포토존으로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 입구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북한산 회룡탐방지원센터까지로 2시간 남짓 걸리는 산책 코스 중 일부.



도시의 새 꿈을 찾고 미래를 싹틔우다!

의정부지방법원

사회적 갈등 해결과 정의 실현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원의 사명과 함께 지역민의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미래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방법원이 있다. 관할지역 범위와 인구가 수도권에서도 손꼽힐 만큼 큰 규모지만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을 소개한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가능성을 만드는 요소 가득

60년 넘게 주둔한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다시금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희망을 품게 된 의정부, 그 중심부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양지원과 7개 시군법원, 10개 등기소가 있는 경기 북부 중심 법원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히 관할지역 중 휴전선 150km에 이르는 접경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천군과 철원군, 포천시 일부는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관할에 있다가 전쟁 이후 남한 관할이 된 수복지구이다. 때문에 위 지역이 북한 관할에 있을 때 부동산등기부가 대체로 폐기됐고 6.25 전쟁을 거치며 등기소가 소실돼 수복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일명 사정명의인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에 폭증했던 안타까운 역사도 있다.

한편 서울과 인접한 관할지역인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 운정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 증가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 역시 경기 북부 행정 중심 지역으로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교통망 등에 의해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양주시, 동두천시와의 통합 논의도 제기되는 등 발전을 위한 변화와 새로운 기회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든든한 후견 사업, 사이버학교 ‘I WISH CAMPUS’

관할지역 내 희망적 변화들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달라진 사법 서비스 기관으로 지역민에 다가서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정종관 법원장은 무엇보다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후견적·복지적 사업 시행이야말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자랑이라고 소개했다.

“2016년 7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보호소년을 위해 개교한 전국법원 최초의 사이버 학교 ‘I WISH CAMPUS(희망의 학교)’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버 학교에서는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대비 공부방 운영 등 교육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호소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에도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비행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들 간의 축구대회인 ‘슈팅스타’와 미용 및 제빵 경연대회, 그 외에 등산학교, 경찰학교, 병영캠프, 축구교실, 인생나눔교실 등으로 다시금 꿈을 심어주는 ‘I WISH CAMPUS(희망의 학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에서 소년





의정부지방법원활동모습. (사진 순서대로) KBS '도전! 골든벨' 특집방송, 'I WISH CAMPUS' 모의고사, 행복나눔봉사단, 미용 및 제빵 경연대회, 'I WISH CAMPUS'를 맡아 진행했던 의정부지방법원 천창일 참여관.

아동보호단독 신동주 판사가 대법원장 표창을 받는 경사도 있었다. 민사신청과 천창일 참여관은 지난해까지 사이버 학교를 운영하며 보람됐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제 개교 2년차를 맞이하였네요. 지난해 초 4개월간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지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6명 중 5명이 합격하게 돼 너무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사이버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보호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부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전국에서 첫 손에 꼽힐 정도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의정부지방법원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총 41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제11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 우수재판부로 선정되어 국제화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욱 친근

하게 법원을 느낄 수 있도록 대법원 중앙홀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주최로 ‘도전! 골든벨’ 특집 방송을 진행하여 2017년 9월 10일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법관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며 2018년 1월 현재 정기후원자가 70명에 이르고 있는 행복나눔 봉사단은 매년 11월 사랑의 연탄배달, 쌀배달 등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접경지역의 법원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통일법연구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통일법에 관한 실무연구를 지속하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12월경에는 통일법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어 통일사법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눈높이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우리 법원은 1962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개원하여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고양지원과 7개 시군법원, 10개 등기소가 있고 770여 명(고양지원 포함)의 법관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관할 인구가 340만 명

이 넘어 수도권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법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각종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법원이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 유지에 기여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관내 의정부시, 포천시 등의 통장, 부녀회, 택시기사,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법원에 초청하여,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한 후, 법원장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는 외부 소통행사를 기획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다시 재정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도 이제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사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품위 있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되,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사자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고, 언행을 신중히 하며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는 이제 예전의 부대찌개만이 유명했던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지방법원도 경기북부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 법원으로서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눈높이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노후한 현 청사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역사

- 1895. 5. 10. 개성지방법판소 설치
- 1962. 9.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신설
- 1963. 12. 13.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
- 2003. 3. 1. 고양지원 설치(고양시·파주시→고양지원)
- 2004. 2.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
- 2009. 10. 12. 의정부등기소 설치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



■ 시군법원, 등기소 ■ 시군법원(법관 상주), 등기소 ■ 등기소



인구(명)



인구분포(%)



면적(m²)

본 원 1,916,584
고양지원 1,475,127

56.5
43.5

4,222.8
940.1

(2018. 1. 1.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직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순 없을까?

명절증후군 예방을 위한 비책 나누기



(좌측부터) 강승영 실무관, 박수경 행정관, 김새롬 참여관, 김현미 실무관

어릴 적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이 어느 순간부터 피하고 싶은 날, 부담스러운 연중행사가 되었다면 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여보자. 눈치 9단으로 명절날 가정의 평화를 지킨 남편부터 할 말 많은 며느리까지 모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았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이런 명절
이렇게
해보세요.

아
정말 저로 한번
그려봐요겠어요.



저는 결혼 7년 차로 집과 처가는 구리이고 고향은 태백입니다.



결혼 5년 차고 저와 신랑 모두 고향이 제주예요. 다행히 교통 체증 걱정은 없어요.



저는 결혼 6년 차로 명절 때마다 전국일주를 해요. 저희 집은 서울, 시댁은 대구, 친정은 김제거든요.



결혼 9년 차니 제가 제일 고참이네요. 친정은 서울, 시댁은 강원도 철원, 집이 양주라서 모두 1시간 거리이고 방향도 교통체증 반대 방향이라 막히는 건 없어요.

남편 측 대표로
행정관님이
여기 좀 해주세요.

아, 저,
그럴 땐 말이죠



와~ 부럽네요. 평상시 구리에서 태백까지 3시간인데 명절 때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출발 전날 아이들 옷까지 다 입혀놓고 새벽까지 피곤하게 놀게 한 후 새벽 4시 경에 아이들 업고, 내려와 차에 태워 출발합니다.



저는 남편과 따로 출발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시느라 저희 집에 와계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둘 데리고 제가 먼저 가요.



아,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저도 먼저 보내는 걸 고민해봐야겠어요. 결혼 초기에는 운전으로 피곤하다고 명절 내내 해주는 밥 먹고 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볼 보기 싫었을까? 이젠 간 크게 안 그러합니다. 아내의 심기를 살피죠. (하하)



저는 명절에 주로 설거지 담당이에요. 다 먹고 치우고 나면 또 다음 설거지... 그런데 대가족이 모이니 남자들만 먼저 앉아 식사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자들은 일하느라 후다닥 먹게 되고요.



저도 그때 기분 알아요. 명절날 시어머니와 부산하게 어른들 밥상 차려 났는데 제 남편도 그 자리에 쏙 끼어 앉더라고요. 아니, 저릴 수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신랑이라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는 눈치라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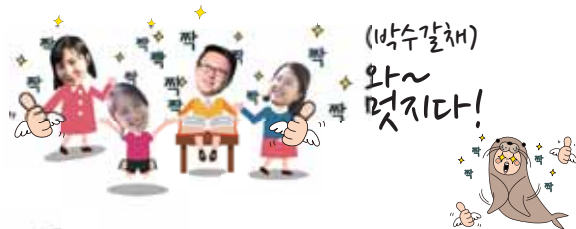
저도 힘들었던 일은 바로 얘기했어요. 저희 시댁은 명절날 여자들까지 모두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절을 해요. 아기는 우는데 한복을 입고 그 위에 얘기 떠까지 매고 촌수로 할아버지뻘 된다는 젊은 분들께 차례로 절을 하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글썩글썩)
아이고, 저런...
힘들겠네.



집안마다 문화가 다르니 이해 안 되고 힘들 수 있죠. 또 시댁에서 아무리 쉬어라, 편하게 있어라 해도 시댁은 시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치 봐서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아이들 핑계로 아내를 적당히 불러들이기도 해요.



저는 결혼 초기 명절에 어머니와 내내 마주앉아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대화가 끊길까봐 머릿속으로 주제를 계속 생각했어요. (웃음) 지금은 서로 이미 많은 애기로 공감대가 있으니 그런 걱정은 없지만요.



할 얘기 없을 땐 남편 흥 보면 되는데... (일동웃음) 저희 부부는 올라오는 길에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도 뒤끝은 없어요.



명절증후군 예방에는 충분한 대화가 답이에요. 명절증후군 대부분이 서로 다른 가족문화에서 오는 오해이기 때문에 마음을 연 대화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예요.



자,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한 대화 많이 나누시고 모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연휴 되세요.



하늘빛 님은

의정부의 겨울 속으로

의정부 여행을 시작하며 고 천상병(1930~1993) 시인의 '귀천' 한 대목을 읊조려본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했던 재치와 감성을 끌어들여 만들어진 이른바 '소풍길'(총 71.7km)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의정부, 그곳에서 바쁜 일상에 잠시 마침표를 찍어본다.

취재 | 사진 김초록(여행작가)

콧노래 부르며 걷는 소풍길

소풍길은 의정부를 에워싼 시(市) 외곽 6개 코스와 중랑천, 부용천 등 시내를 가로지르는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직동근린공원(의정부 예술의 전당 뒤편)에서 시작

하는 소풍길은 인공의 손길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꾸민 숲길이다. 중간중간 벤치가 놓여 있고 운동기구, 통나무집이 운치를 더한다. 들머리에 있는 통나무집은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 이국풍의 통



많은 공기를 마시며 걷기 좋은 소풍길.



사패산 봉우리가 바라보이는 회룡사.

나무집이 울창한 수목 사이사이에 들어앉아 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고 세면도구,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개인 물품은 가져가야 한다.

오밀조밀 이어진 소풍길은 북한산 둘레길(도봉산 지구)의 하나인 안골길로 이어진다. 사패산 정상으로 오르는 안골길은 깊고 험준하다. 안골계곡에서 사패산 능선을 따라 송추 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안골계곡에서 사패산 정상에 오른 다음 사패능선-회룡사거리-회룡사-회룡역으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다.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좋은 다양한 등산로 사패산으로 오르는 길은 이밖에 범골, 회룡골, 안말, 원도봉 등 다양하다. 범골에서 시작하면 호암사를 경유하게 되고, 회룡골은 천년고찰 회룡사와 만난다. 또 안말은 법화사, 원도봉은 원각사와 쌍용사, 심원사, 원효사, 망월사를 지난다.

회룡사 서쪽 계곡 깊숙한 곳엔 석굴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다. 김구 선생은 해방 후인 1948년 이곳 석굴암을 찾아 ‘석굴암 불 무자 중추 유차 김구(石窟庵 佛 戊子 仲秋 遊此



직동공원 입구의 소풍길에서 만난 통나무집,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안골길(북한산 둘레길)을 알리는 입간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리라...

고 최승현 시인의 시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출판



서계 박세당 선생은 관직에서 물어난 뒤 이곳 고택에 머물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서계 박세당 고택 앞에 서 있는 수령 450년의 은행나무.

金九)란 친필을 써 주었다. 석굴암 근처 큰 바위에 김구 선생 필적이 남아 있다.

사패산 산행은 어느 코스든 3~4시간(왕복 기준) 정도 걸린다. 특히 겨울에는 산길이 얼어붙는 경우가 많아 아이젠이나 비상식량, 간단한 약품은 꼭 준비하도록 하자. 산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봉산역 인근에 있는 도봉산 탐방지원센터(02-954-2566)와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 양주 송추 쪽에 있는 오봉탐방지원센터(031-826-4559)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다양한 삶의 현장

의정부는 산만 있는 게 아니다. 삶의 현장인 전통시장(의정부 제일시장)과 편리한 시설의 쇼핑 공간, 젊음이 넘실대는 로데오 거리, 빙상 꿈나무들이 땀을 흘리는 빙상경기장,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 같은 문화시설도 시내 곳곳에 포진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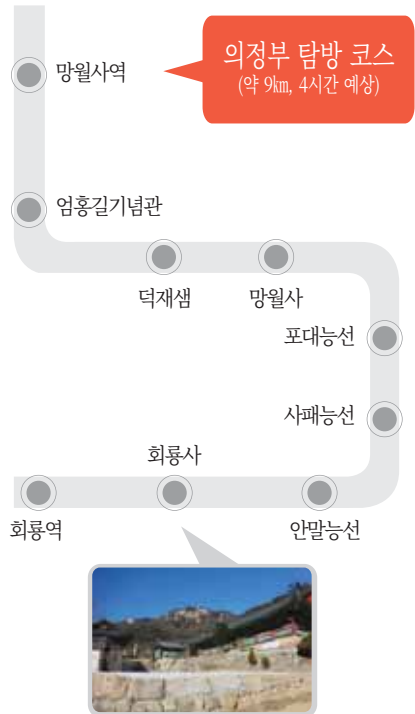
(위)의정부실내빙상장을 찾은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의정부의 맛으로 떠오르고 있는 족발, 가능역 족발골목에 가면 맛볼 수 있다.



(오른쪽)신숙주 선생 묘소 앞에 그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한글창제사적비를 세워놓았다.



도심 한복판에 장을 펼친 제일시장은 5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주말 저녁 무렵엔 찬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들과 인근 서울, 남양주,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철원에서 온 외지인들이 호객하는 상인들과 어우러져 시장 안은 생기가 넘친다. 더구나 민속 명절 설 대목이 가까워지면서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사려는 발길이 늘었다.

가능역 주변엔 이른바 족발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속을 든든히 채운 후 의정부실내빙상장에 들러보면 좋다. 의정부는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들을 여럿 배출한 고장이다. 의정부실내빙상장은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이곳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 유적

포천과 경계를 이룬 부용산 근처(의정부시 고산동)에는

조선 초기의 학자로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세종 때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여섯 임금을 보필한 신숙주 선생의 묘가 있다. 무송군부인 윤씨와 나란히 자리한 쌍분 앞에는 묘비석과 상석, 문인상, 신도비, 한글창제사적비 등 각종 석물들을 배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음으로 갈 곳은 수락산 기슭의 서계 박세당 고택이다. 조선 후기 실학파의 한 사람인 박세당(1629~1703)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앞면 5칸, 옆면 2칸 반으로 누마루가 붙은 ‘乙 자형’ 사랑채는 한눈에 봐도 멋스럽고 고풍스럽다. 선생은 이곳 사랑채에서 뛰어난 농사관련 저술로 평가받는 ‘색경(穡經)’을 집필했다. 사랑채 앞에는 수령 450년이 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종손이 고택 옆에 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하려면 미리 의정부시청 문화관광과에 연락해야 한다. 📞



공중전화부스의 색다른 변신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

공중전화부스가 대법원 인신보호제도를 안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서울시 2개소에 시범 설치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손쉽게 인신보호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도와 관련된 정보제공은 물론 인신보호제도 콜센터를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유동인구 많은 서초·교대역 인근 설치로 관심 집중
정신요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신보호제도’가 시행(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년째다. 그러나 장애인·노숙인 보호시설인 대구 희망원의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인신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이번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홍보 아이디어로 보다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된 장소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 인근으로 주변에는 법원과 검찰청,

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사유로 시설에 강제로 갇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구제를 위해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위법한 사유 등을 기재한 구제 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열어 부당한 구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해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 받을 수 있으며, 정신감정비용도 소송구조를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 등의 관련 업종과 대단지 아파트가 배후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과 수많은 유동인구가 드나드는 곳이다. 인신보호제도 홍보 공중전화부스는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 서초대로 변에 각각 1개소가 세워졌으며 주변을 지나는 도로 측 통행차량과 보도 측 행인에게 고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관심과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인신보호제도 홍보를 위해 새롭게 변신한 공중전화부스

인신보호제도 홍보를 위해 공중전화부스는 어떻게 변신했을까? 우선 공중전화의 외관 색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신뢰감이 느껴지는 남색을 배경색으로 활용하고 화사한 핑크색을 덧칠하여, 기존 공중전화에 조형미를 더하고 주목도를 높였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전까지 이곳에 공중전화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만큼 새롭게 탈바꿈했다. 부스의 상단과 도로 측 면에는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번호를 안내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출퇴근으로 매일 이곳을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노출효과를 얻어 각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중전화부스 내부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다. 내부 정면에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보거나 개념이 모호하던 이들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 내 다른 한쪽 면 역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보기 쉽게 구성된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 등의 내용으로 전화 대기 중이거나 통화 중에도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부스 내부에는 공중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인신보호제도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듯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기 보급으로 점차 이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공중전화의 부스는 최근 은행 ATM기와 합치거나 책방, 안전부스, 전기차 충전 부스, 와이파이 부스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대중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지만 법원의 제도 홍보용으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여기까지 오기까지

글
정상용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실무관)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자리에 앉히고, 제 앞에 앉으신 뒤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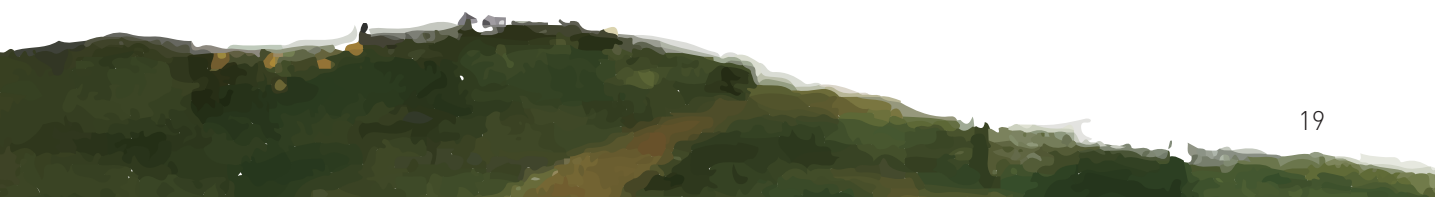
“아빠와 엄마가 이혼해서 따로 살기로 했는데, 너는 누구와 살고 싶니?” 저는 이때의 말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28살의 나이인 지금까지도 그날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어머니께서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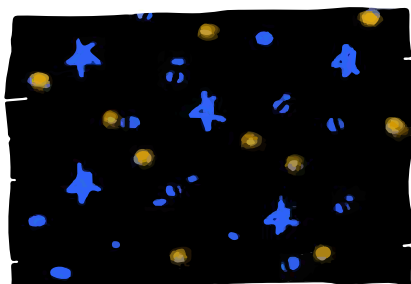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 저는 지인 집에 맡겨졌지만, 지인 분의 집도 가정집인지라 3개월 정도 지내면 눈치가 보여서 다른 지인 집에 맡겨지며, 그렇게 6번 정도 반복된 뒤에는 어머니께서 작은 빌라를 구하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청 기뻐지요.

비록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밤낮 일을 하시러 나가셨지만, 남의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단 훨씬 좋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엄마가 살아서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살짝 무섭네요) 머리맡에 “엄마 내 손 잡고 자”라고 쪽지를 적어두곤 했습니다. 시간의 개념도 모르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출근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어머니께서는 9시간 뒤에 온다고 대답하셨고, 어린 저는 금방이냐고 되묻고 어머니는 매번 금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이란 말만 믿고 만날 금방 안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마다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어린 저는 금방이냐고
되묻고 금방이란 말만 믿고
금방 안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마다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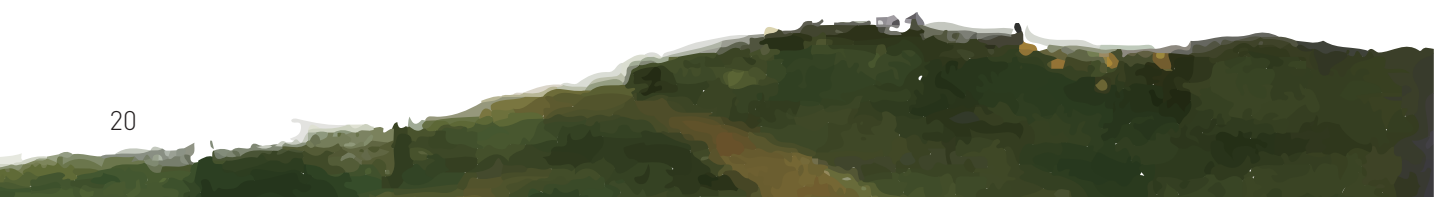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다짐하셨던 마음가짐으로
일들을 맞이하면
못 해낼 것이 없을 것이고,
서로의 은인이 되시면서,
미래에 더욱 더 찬란하고
행복한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8살 때 제 생일날 어머니께서는 생일축하기념으로 저를 남산타워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처음 가보는 서울이라서 큰 건물들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엄청 신났었어요.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보니 회전레스토랑이 있어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레스토랑에서 뭐라도 먹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바로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저렴한 돈가스를 한 개만 주문하셨고, 제가 “엄마는 안 먹어?” 물어보자 어머니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수프를 드시면서 이거면 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가끔 그때의 기억이 생각날 때면 아직도 눈물이 글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돈을 버시면서 점점 저희 집은 안정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성인이 되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첫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의 문을 두들겼고, 나가보았더니 사채업자였습니다. 빚 독촉을 하였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잠을 자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 말씀드려놓겠다고 돌려보내고, 귀가하신 어머니께 여쭙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 집과 차량 전부 압류당하고 집의 가스까지 끊겼다는 얘기였죠. 안정되어가던 우리 집이 다시 힘들어졌다는 소식에 뭐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저는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건설현장, 영업, 경비, 서비스, 식당, 각종 행사 등 직종 상관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을 전부하며 돈을 버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도움으로 집안사정이 예전보다 빠르게 나아졌고, 대학에 복학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등록금과 생활비는 제가 학교에 다니면



서 별겠으니 아무것도 신경 쓰시지 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똑같았지만, 제가 궁금하고 경험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로호 발사, 모터쇼, 놀이공원, 각종 행사 등 힘들어도 즐겁게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학비를 벌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시기에 맞춰서 서울고등법원에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인턴의 서러움에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가 방송돼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첫날부터 저의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직원과 인턴의 경계가 없이 법원의 일원으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인턴이라는 호칭 대신에 직원과 같은 실무관으로 호칭을 사용해 주시면서 인턴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인턴들의 꿈이 법원공무원인 만큼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며 인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법원공무원이 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실무관으로 1년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법원 사람들> 책자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법원 가족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보다 심한 우여곡절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앞으로도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길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처음에 다짐하셨던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들을 맞이하면 못 해낼 것이 없을 것이고, 많은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서로의 은인이 되시면서, 미래에 더욱더 찬란하고 행복한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당신의 휴게소는 어디인가요

글 김세솔(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속기사)

휴게(hygge) 소(所)

우리 동네에 낯선 간판이 보입니다. ‘휴게소’.

휴게소도 아니고, 휴게소는 뭘까? 가까이 가보니 입구 앞에 작고 파란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hygge所’라고 쓰여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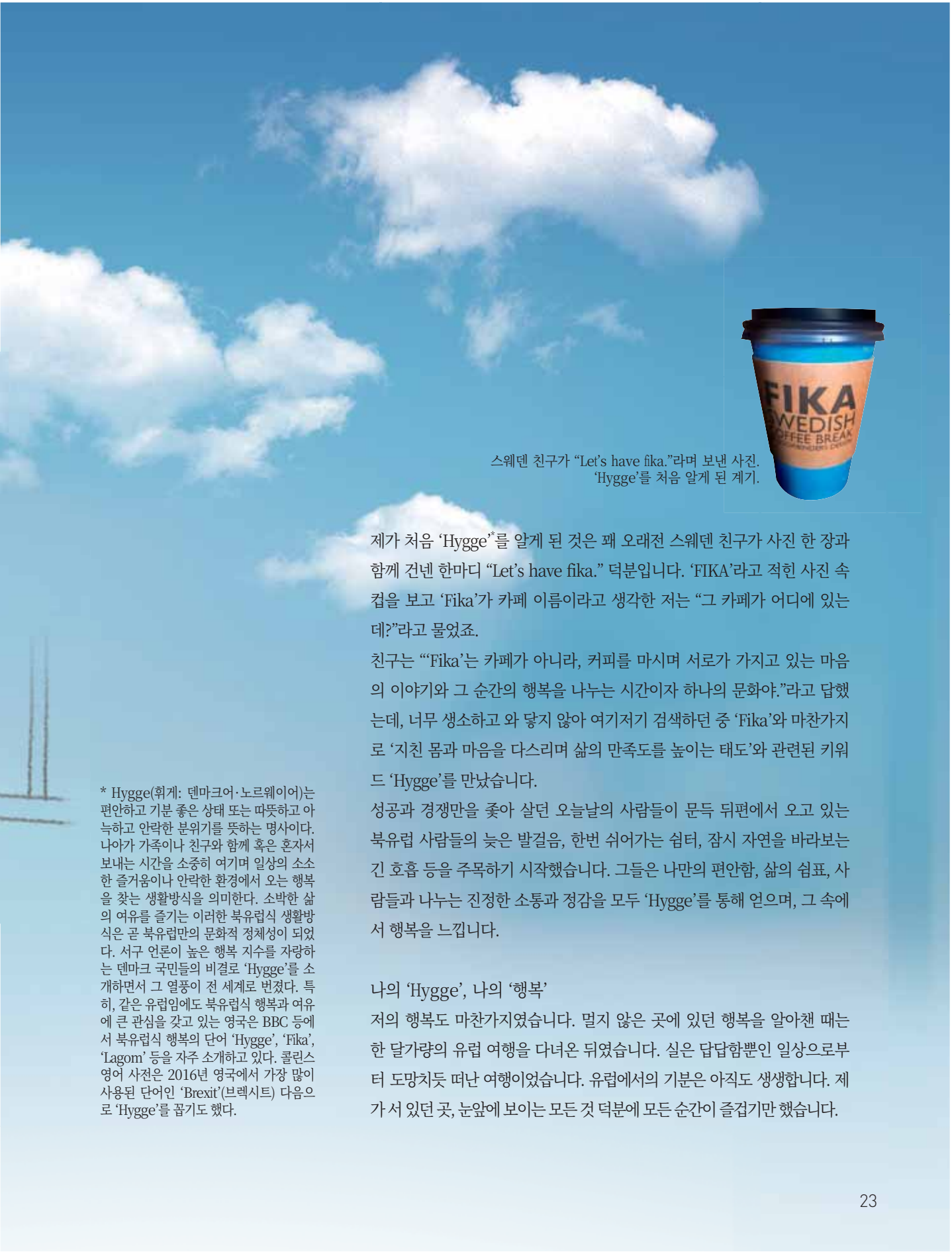
유리로 된 가게 안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김밥을 파는 작은 식당 같은데...

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식당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피식 나오는 웃음을 굳이 참지 않은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김밥 한 줄 주세요.”



김밥집 ‘휴게소’의 작고 파란 표지판.



스웨덴 친구가 “Let’s have fika.”라며 보낸 사진.
‘Hygge’를 처음 알게 된 계기.

제가 처음 ‘Hygge’를 알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스웨덴 친구가 사진 한 장과 함께 건넨 한마디 “Let’s have fika.” 덕분입니다. ‘FIKA’라고 적힌 사진 속 컵을 보고 ‘Fika’가 카페 이름이라고 생각한 저는 “그 카페가 어디에 있는 데?”라고 물었죠.

친구는 “‘Fika’는 카페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야기와 그 순간의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자 하나의 문화야.”라고 답했는데, 너무 생소하고 와 닿지 않아 여기저기 검색하던 중 ‘Fika’와 마찬가지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태도’와 관련된 키워드 ‘Hygge’를 만났습니다.

성공과 경쟁만을 좇아 살던 오늘날의 사람들이 문득 뒤편에서 오고 있는 북유럽 사람들의 늦은 발걸음, 한번 쉬어가는 습터, 잠시 자연을 바라보는 긴 호흡 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만의 편안함, 삶의 선풍, 사람들과 나누는 진정한 소통과 정감을 모두 ‘Hygge’를 통해 얻으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나의 ‘Hygge’, 나의 ‘행복’

저의 행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행복을 알아챈 때는 한 달가량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실은 답답함뿐인 일상으로부터 도망치듯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서 있던 곳,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덕분에 모든 순간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 Hygge(히게: 덴마크어·노르웨이어)는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 또는 따뜻하고 아늑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뜻하는 명사이다. 나이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찾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이러한 북유럽식 생활방식은 곧 북유럽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되었다. 서구 언론이 높은 행복 지수를 자랑하는 덴마크 국민들의 비결로 ‘Hygge’를 소개하면서 그 열풍이 전 세계로 번졌다. 특히, 같은 유럽임에도 북유럽식 행복과 여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은 BBC 등에서 북유럽식 행복의 단어 ‘Hygge’, ‘Fika’, ‘Lagom’ 등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 콜린스 영어 사전은 2016년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 ‘Brexit’(브렉시트) 다음으로 ‘Hygge’를 꼽기도 했다.

저스틴 비버의 신곡을 부르며 신나게 제 앞을 걷는 스페인 여학생들의 뒷 모습이 너무나 예뻐고, 미장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아저씨들이 보이는 큰 창문이 좋았습니다. 동네 뒷동산에 올라 노을을 구경하는 젊은이들 틈에 앉아 있으니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그토록 편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돌아가서도 늘 간직하고 꺼내 보며 잊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한 그 모든 것을 집착하리만큼 카메라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10m를 걷는 것만 해도 한참일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수천 장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사진 중에 멋진 건물, 유명한 박물관, 유적지 같은 랜드마크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전부 흔해 빠진 담장, 보도블록, 횡단보도, 신호등, 하늘, 구멍가게, 가격표, 표지판, 초인종, 혹은 상인이나 행인들의 모습뿐입니다.

이상하죠? 이 모든 것은 유럽을 떠나기 전에도 늘 제 일상에 있던 ‘별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유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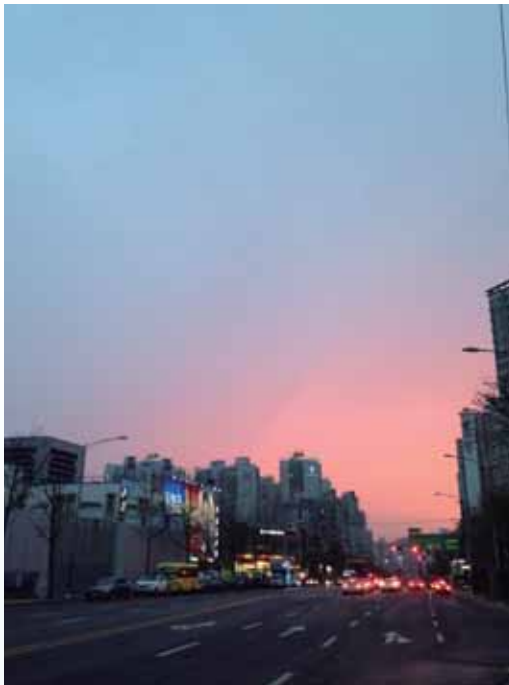
과일가게 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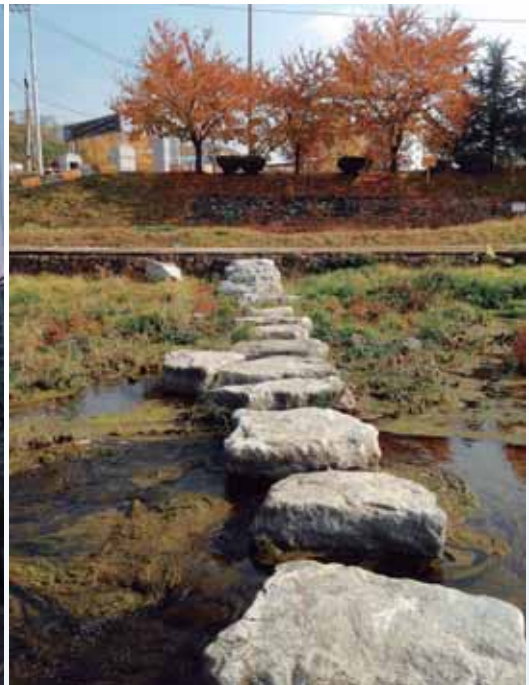
유럽여행 중, 담장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

는 스치기가 그토록 아쉬워 카메라에 담느라 참 애를 썼습니다. 왜 여태 몰랐을까요. 놓치기 아깝던 그것들은 우리 동네에 늘 있던 신호등이고 사람
들이고 하늘입니다. 왜 여태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제야 우리 아파트
현관 옆의 모과나무가 눈에 띄었고, 매일 걷는 횡단보도에서 바라본 분홍
색 석양이 유럽에서의 그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영동지원으로 첫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 내려온 지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
곳만의 행복을 만끽합니다. 스카이라인이 낮은 덕에 유독 넓은 하늘은 아
침에는 구름을, 밤에는 별을 가득 담아 보여줍니다. 손을 꼭 잡고 등교하던
어린 남매 덕에 발견한 하천의 돌다리는 건너편에서 누군가 건너오기 전까지
송사리, 다슬기, 오리, 백로를 관찰할 수 있는 출근길의 명당입니다. 법원 뒤
자두밭에 하얗게 만개했던 꽃이 지고 붉은 자두가 익는 모습, 어딜 가나 주황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수백 그루의 가로수 감나무,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호두나무와 대추나무를 구경하는 재미가 어쩔 이리 쏠쏠한지요.



여행을 마친 뒤, 매일 걷는 횡단보도에서 바라본 석양.



영동지원 출퇴근길의 돌다리.

나만의 휘게소 찾기

그런데 친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자주 ‘힘들어, 힐링할 시간이 필요해, 잠시라도 다 잊고 휴양지로 떠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라고 합니다. 물론 먼 곳으로 떠나 잠시 일상을 잊은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던 활동을 하면 큰 활력소, 에너지,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큰 단점이 있지요. 시간과 비용, 업무 여건 등의 이유로 큰맘을 먹지 않고서야 대부분은 그저 희망사항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포기할 때마다 느끼는 박탈감으로 심신은 더욱 지칩니다. 일상은 자꾸만 ‘버티는 것’이 되고, ‘버티는 것’은 금세 ‘힘들고 피하고픈 것’이 됩니다. 때문에 더욱 큰 현실성을 원하는 지친 현대인들이 ‘YOLO Life’보다 ‘Hygge Life’에 점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삶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의 관점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책을 몇 권 읽어야겠어’, ‘강의를 들어 봐야지’라는 다짐도 하지만, 근본부터 바꾸려니 뭔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만 같아 시작조차 미루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쉽고 가까운 곳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숨을 들이쉬실 잠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순간 느끼는 편안함과 안락함 역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그 행복은 절대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의 하루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바꿔 주었으니까요.

김밥집 ‘hygge所’ 간판 아래 앉아 한입 가득 김밥을 물고, ‘Hygge를 실천하는 31가지 방법’이라는 칼럼을 읽으니 문득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나만의 휘게소 찾기’를 제안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휘게소라면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테죠. 무엇을 하든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그 순간이 ‘Hygge Life’ 아닌가요.

저의 휘게소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퇴근을 함께하는 초록색 자전거입니다. 관사에서 법원까지 자전거를 타는 8분 동안은 울리는 휴대폰도 받을 수 없으니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고, 마음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8분은 온전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입니다. 며칠 전 휘게소 한 곳을 더 마련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짐을 쌓아두던 1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작은 캠핑의자 하나를 놓으니 어릴 적부터 꿈에 그리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낮에는 바람 냄새가 나고요, 밤에는 곤충 소리가 들리고 달과 별이



영동지원 출퇴근을 함께하는 나의 휘게소 초록색 자전거.



보입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듣기 싫던 술부엉이 소리도 휘게소에서 들으니 재밌기만 합니다.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는 묘미를 알아버렸습니다.

당신의 휘게소를 찾아보세요

나만의 서재 또는 단골 식당이나 카페가 있다면 별 5개짜리 휘게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곳이 없더라도 좋습니다. 내 맘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순간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면 그 시간이 찰나일지라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는 5분이 편안함을 준다면 그 사무실 의자가, 혹은 동료 직원과 안부 인사를 나누며 커피믹스 한잔 마시는 5분이 가장 편안하다면 서 있는 창문 앞이,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휘게소가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동안이 가장 안락하다면 바로 그곳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차 안, 주말마다 이용하는 서울행 버스의 첫 번째 자리,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혹은 피아노 의자, 욕조 안, 이불 속, 옥상, 벤치, 미용실 의자, 비 오는 날 우산 아래,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휘게소를 찾아보세요. 그곳이 휘게소라면, 휘게소에 머무는 단 몇 분이 당신의 삶을 마법처럼 바꿔 줄지도 모릅니다.

찬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바빠 흘러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만의 시간과 여유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기에 새해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은 복유럽식 행복을 생각해 보기에 꼭 알맞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매 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삶에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즐기는 'YOLO Life'도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을 위한 특별한 시도 또는 변화만이 해답일까요. 행복은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써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얻어야 하는 것임을 복유럽으로부터 배웠기에, 저는 어디에선가 펼쳐지고 있을 흥미로운 일보다는 지금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옆 사람과 짧은 담소가 더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김밥 한 줄을 먹는 동안, 휘게소라는 식당 이름을 지은 주인아주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단골 식당에 들른 듯 팬스레 긴장이 풀리고 또 한번 웃음이 납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궁금해집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는,
당신의 휘게소는 어디인가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My Life

글 고영삼(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제법 매운 추위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 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아침인사가 햇살만큼 밝다. 그들의 젊음과 생기에 슬그머니 입가에 아버지 미소가 감도는 나는 어느새 훌쩍 나이 먹은 사람이 되어 있다. 사무실에 들어와 코트를 벗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발끝에 뒹굴던 마른 낙엽처럼 부스스 늙수그레한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다.

내 나이 스물여섯 되던 해 여름

지금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무원이 크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던 그때 나는 이곳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던 말단 막내시절의 나는 상관이나 베테랑 선배님들의 눈에 참으로 어설픈 무지렁이였을 것이다.

융통성 없고 임기응변도 능하지 않아 직속상관을 곤란하게 만든 적도 있었고 실수도 잦았던 나였지만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던 선배님들과 내 일처럼 함께 도와준 동료들 덕분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친숙해진 이후부터는 나는 일이 참 즐거웠다. 컴퓨터나 편리한 프로그램이 있던 것도 아닌 시절, 모든 것을 수기로 기록하고 작성해야 했고 때로는 밤새워 일하기도 했지만 일이 좋았고 성실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지원 근무가 많은 직장이기에 경주, 포항, 상주, 안동, 부산 등 객지 생활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타지에서의 외로움도 당연히 받아 들였고 새로운 곳에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사람들을 알아 가는 것을 오히려 큰 장점으로 생각하며 근무를 했다.

그런 경험들은 지금 생각해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 준 것 같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단 한번도 주어진 일에 불만을 표한 적도 없었고 나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도 없다.

9급으로 입사하여 사무관으로 퇴직하면 만족하리라 생각했던 나였는데 지금 첫 근무지였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괄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니 나는 이미 목표초과인 셈이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퇴직까지 봉사하며 근무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초임 시절에 일이 힘들고 빨리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박봉이라는 이유로 금세 실망하고 일을 그만두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삶의 시야를 좀 더 넓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바로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멀리 크게 보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결코 나 자신이 잘나거나 특출나서가 아니라 선배들의 배려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응원, 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안다.

전 직원 호봉 획정 수기작업과 대구서부지원개원 팀장을 맡아 일을 할 때, 잦은 야근과 밤샘작업에도 불평 없이 옆에서 도와주었던 동료들의 수고는 지금도 마음속에 큰 고마움과 빛으로 남아 있다.

나는 ‘줄탁동시(倅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한다. 새가 알에서 나올 때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도 알을 쪼아야 하지만 밖에서 어미 새가 부리로 외벽을 쪼아줘야 쉽게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협력과 상호보완이 필요한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33년 공직생활을 했고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후배들에게 이제는 내가 밖에서 든든히 외벽을 쪼





아주는 선배가 되고 싶은데 나의 이런 진심을 몰라주고 나를 간간한 직장 상사로 여기거나 나의 조언을 지나가는 잔소리쯤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들도 나처럼 머리 희끗한 나이가 되면 알게 되려나... 내가 가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회한에 잠기듯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세월은 너무 빠른 체감속도로 달려간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 정도로 나이를 먹었고 내 청춘은 흘러갔다.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지 않으면 뽕안 서리를 맞은 것처럼 정수리 부분이 드러나고 눈썹 사이에서도 하얀 털이 삐죽이 솟아날 때도 있다. 미간과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몸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의 순리이건만 울적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퇴직할 날도 멀지 않았고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큰 상실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박탈감이 적다고는 해도 조직에서 느끼던 소속감을 하루아침에 잃는 서운함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퇴직 이후에도 즐겁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이런저런 취미 생활도 하고 구체적인 퇴직 이후의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퇴직 이후 변두리에 조그만 개인 갤러리 겸 카페를 갖고 싶다. 이익창출이 우선 목적이 아니라 내가 취미로 하는 사진을 걸어 전시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나 고마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커피를 마시며 사진에 대해 공부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이다.

틈틈이 여가를 이용해 작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니 현재 주어진 일도 새삼 감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 여러 가지를 배우는 일도 늘 신이 난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 나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 다시 되돌아오는 길목에서 달리는 셈이다. 한 번 달렸던 길이니 실수는 적을 것이나 소진된 기운 때문에 각오는 더 다져야 하는 길이다. 이제는 오는 길에서 놓쳤던 풍경도 감상하고 길가에서 응원해주는 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드는 여유도 보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주름지고 나이 들었어도 지금의 내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고 여겨진다.

시간이 더 흐르고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아직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그 미지의 카페 갤러리에 누구든 들려주기를 바란다. 인생을 실컷 산 듯한 미소 띤 은발의 노신사 하나가 방금 내린 향 좋은 커피 한잔을 권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산다는 건 참 멋진 일이지요?”





꿈의학교 ‘청.와.대’ 대법원 견학 “TV에서만 보던 대법원 견학에 설레었어요”

벌써 봄이 온 걸까. 대법원 로비가 봄별같이 밝은 웃음 소리로 가득 찼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와.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대법원에 방문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접하듯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의 모습에 보는 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취재 윤지예 | 사진 김인규



1월 15일 오전, 꿈의 학교라 불리는 ‘청.와.대’가 대법원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청소년이 와글와글 소통하는 대토론 의회학교’를 줄인 말로, 경기도 광명시 관내 한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밖 학교다. 이날 40명 학생과 인솔교사들은 법원전시관에서 실무관 안내에 따라 전시 설명을 들었다. 설명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침착하게 눈을 빛내며 경청했고 답을 맞혀보기도 했다.

법원전시관 안내자는 헌법 최초 제정 날짜, 고조선 8조법을 포함한 전통 법제, 재판 종류, 판사복 등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은 법정 모형을 보며 원고와 피고 개념을 배웠다. 법원전시관 안내자가 영화 ‘암살’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판사복 변천사를 설명하자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자리를 옮겨 대법정으로 향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과 외국 정의의 여신상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설명을 들으며 신기한 듯 연신 대법정 이곳 저곳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견학담당 실무관은 대법정·소법정에서 내부 구조 및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이윽고 서여정 판사가 도착해 ‘판사와의 대화’가 시작됐다. 서여정 판사는 현재 근무처인 법원도서관에 대하여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을 청했다. 학생들은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터 ‘법복을 입으면 어떤가요?’ ‘판사를 꿈꾼 계기는 무엇인가요?’ 등 적극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학생들은 재판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지, 일반 판사와 대법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 법과 법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상아 학생은 “책에서 보던 것을 와서 보니 훨씬 생생하게 느껴져 좋았고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인을 꿈꾸는 김근형, 최영은 학생은 “법정에 올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법에 대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진우 학생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오게 되어 들떴고 건물이 넓고 웅장해 좋았다”라고 전했다. 권보림 인솔교사는 “‘청.와.대’가 다른 기관에도 견학을 많이 갔지만 특히 이곳 담당자 분들이 생생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했다”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좋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쌓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너무 식상하신가요?

글 서여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1년 가까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경로로 맞춤법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면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저도 아리송한 것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막 떨어집니다. “검토해 본 후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을 번 후, 선배 조사심의관들의 눈길과 손길이 반영된 종합법률정보의 판례를 검색, 법원도서관 발간 『법원 맞춤법 자료집』 찾아보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검색, 조사위원들에게 문의, 녹색 창에 물어보기 등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정확한 답변과 그 근거를 찾습니다. 때로는 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국립국어원 소속 국어학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조사심의관을 마치 ‘맞춤법의 대가’라거나 ‘걸어 다니는 국어사전’과 같이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국어의 올바른 쓰임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량의 판결문을 읽고 교정을 보면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판결문 작성 시 자주 반복되는 오류나 저희가 판결문을 교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따릉~따릉~

“여보세요! 법원도서관 서여정 판사입니다.”
“○○○ 연구관입니다.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되어있다’고 붙여 써야 하나요? 아니면 띄어 써야 하나요?”



따릉~따릉~

“안녕하십니까! 법원도서관 서여정 판사입니다.”
“△△△ 대법관님 비서관입니다. 대법관님께서 ‘유·무효’라는 표현을 쓸 때 가운데띄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십니까.”



카툰~카툰~

“□□□ 심의관입니다.
‘또한’ 다음에 보통 수평줄을 쓰나요? 아니면 쓰지 않나요?”



이메일이 도착하였습니다.

“◇◇◇ 판사입니다. ‘장례를 치르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장례를 치루다’가 맞습니까?”

1. 다음 날과 다음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사판결문에서 가장 자주 교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다음 날’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음날’을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로 풀이하며 그 예로 “다음날에 만나면 식사나 하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사용하는 용법, 즉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바로 뒤에 오는 날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다음 날’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최근 국립국어원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활용하고 있는 다음(Daum)사이트 어학사전에는 ‘다음날’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뒤에 오는 날’로 풀이하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은 현재로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위와 같은 의미가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풀이는 표준어 풀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원도서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입장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다음 날’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그중과 이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의미하는 ‘그중’은 합성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씁니다. 이와 달리 의존명사로서 ‘여럿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을 이용하여 ‘이것들 가운데’, ‘저것

들 가운데’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에는 ‘이 중’, ‘저 중’으로 띄어 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판결문을 쓸 때 ‘그중’을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열심히 띄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제가 띄어 썼던 만큼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국어원 묻고답하기 코너에는 ‘그중’과 ‘이 중’ 또는 ‘저 중’의 띄어쓰기 차이에 관하여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항의성 질문들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관된 답변은 합성어인 그중은 붙여 쓰고, 나머지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용법에 대해 ‘이 중’, ‘저 중’의 경우 앞 문장에 반드시 이것, 여기, 저기 따위의 지시 대명사가 있거나 화자, 청자, 대상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만 쓸 수 있지만, ‘그중’은 앞 문장에 지시 대명사가 없어도,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3. 가운데점? 쉼표? 그냥 붙여쓰기?

일탈·남용, 유·무효,
발행·교부, 사용·수익, 심리·판단, 주장·입증
국내외, 국공립, 인허가, 출퇴근, 직간접, 선후배, 민형사,
검인정

가운데점(·)의 용례는 한글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2017. 3. 28.)] 부록 제5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록의 내용과 국립국어원의 해설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①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② 각각의 어구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 집합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때, 즉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곤충의 몸은 머리·가슴·배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③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통권 제54·55·56호, 다만 이때는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에 가운데점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국공립, 직간접, 민형사 등과 같이 ③의 경우에 공통 성분이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인 말 중에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데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단어로 굳어졌는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4. 접속어 뒤에 쉼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법원도서관에서는 현재 공보 등의 간행이나 종합법률정보 등록을 위한 판결문 교정을 볼 때 접속어 중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고, 다만, 따라서, 한편, 또한’의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으로, 먼저, 보건대, 살피건대, 왜냐하면, 하지만, 첫째/둘째’ 등의 접속어 뒤에는 쉼표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도서관이 발행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에 근거한 기준인데, 그 배경을 더듬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개정(2015. 1. 1. 시행)되기 전의 「한글 맞춤법」에는 쉼표의 용법에 관하여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이를 「법원 맞춤법 자료집」에서 참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었고, 현재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국립국어원의 해설에 따르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등과 같은 접속 부사의 뒤에서는 접속 부사와 쉼표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접속 부사의 뒤에서도 쉼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법원도서관은 현재까지는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고, 다만, 따라서, 한편, 또한’의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할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문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공적인 간행물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연월일을 마침표로 표시할 때에는……

글자 대신 마침표로 연월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즉, ‘1919년 3월 1일’에서 한글로 쓰인 ‘년, 월, 일’을 각각 마침표로 대신하여 ‘1919. 3. 1.’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보고서 등의 일반 문서 작성 시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글자로 치면 ‘일’을 쓰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잘못된 표기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른 숫자를 덧붙여 변조할 우려도 있으므로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해설입니다.

한편 연과 월 또는 월과 일만 있을 때에도 글자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연과 월 또는 월과 일만 나오는 경우에도 마침표로 바꾸는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 ‘같은 달 7.’ 등과 같이 년, 월, 일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글자로 써야 합니다. ‘2018년’, ‘같은 달 7일’, 이렇게 말입니다.

6. 판결의 표시

-
- ①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②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판결
 - ③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206287 판결
-

판결의 표시, 판결·문헌의 인용례에 관하여는 「법원 맞춤법 자료집」 [부록 1] 부분에 매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빈번하게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판결은 법원,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의 순서로 기재하되, ①의 경우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일 경우 ‘전원 합의체’를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의 예와 같이 여러 개의 판결을 인용할 때에는 판결마다 ‘대법원’을 기재하며, 선고 일자 순으로 나열합니다. 가끔 최근 선고된 판결부터, 즉 선고 일자 역순으로 나열된 경우가 보이는데, 이런 때에는 저희가 살짝 순서를 바꾸어 교정합니다. ③의 경우처럼 본소와 반소가 있는 때에도 사건의 구



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사건번호만을 기재합니다. 종합법률정보의 출처에는 본소, 반소, 참가, 병합 등이 표시되어 ③의 판결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본소), 2015다206287(반소) 판결]로 표시되는데 이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법원 맞춤법 자료집」에서 제시한 표시 기준과 다소 달라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원도서관에서 비교적 자주 바로잡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기초적이면서도 습관적으로 틀리기 쉬운 내용이라서 위의 사항들은 과거의 어느 시기에 조사심의관 코너에서 한 번 이상은 다루어졌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함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말씀드린 이유는 교정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이기심의 발로였음을 고백하오니,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이 글을 감수해준 이기리 조사심의관의 첨언을 소개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가상 PC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내부망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http://stdweb2.korean.go.kr/’이라고 입력하고 즐겨찾기에 등록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지난 1년, 당신의 글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밝은 표정의 수상자들이 함께 모인 시상식은 법원 가족들의 문학적 역량을 향상하고 「법원사람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해 열고 있으며 올해는 10명의 법원 가족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취재 윤지예 | 사진 김인규

2017년 「법원사람들」을 알차게 채워준 수상자들 차가운 겨울 냉기도 녹일 만큼 열기 가득했던 문예상 시상식이 지난 1월 15일 대법원 본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열린 시상식은 다양한 정보와 법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매월 발행되는 「법원사람들」에 게재된 기고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가 나와 시상의 자리에서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은 이종표 홍보심의관의 인사말로 시작됐고, 수상자들이 차례로 나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은 뒤 악수와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법원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원사람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자리를 옮긴 수상자들이 대법정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기쁨과 행복 가득한 수상자들의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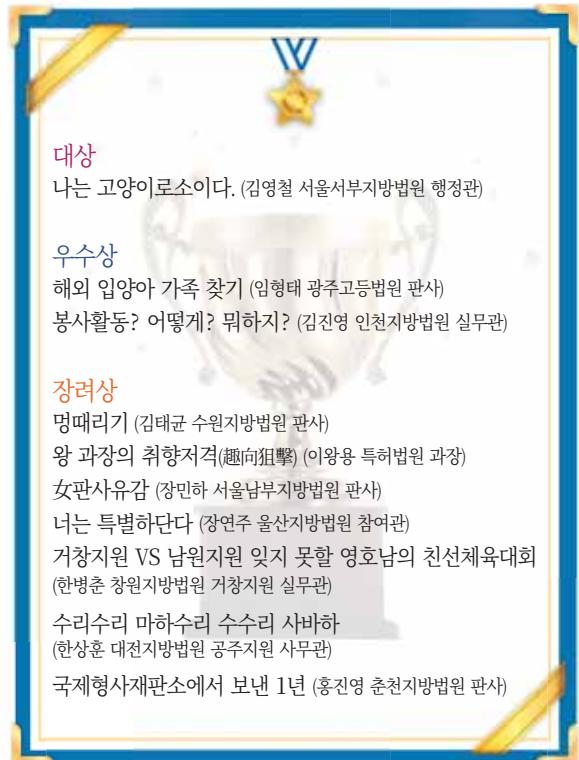
일상의 고단한 업무 중에 청량한 활력이 되어준 문예상 수상 소식에 들뜬 모습으로 수상자들은 이날 시상식에서 각자의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 수상자 김영철 서울서부지방법원 행정관은 “편안하게 소소한 이야기를 쓴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음악과 고양이이다”라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독자들에게 고양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평소 「법원사람들」 애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우수상 수상자 김진영 인천지방법원 실무관은 “봉사활동이 어렵지 않은 일임을 알리고 싶었다”며 장애인 스포츠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려상 수상자인 장민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동

료들과 여판사로서의 고충을 나누다 「법원사람들」에 이 내용을 실으면 공감과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편견을 미처 의식하지 못해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



(왼쪽부터) 대상 김영철 행정관,
우수상 김진영 실무관,
장려상 장민하 판사.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올해는
좋은 일 가득,
행복 예감



정든 근무지를 떠나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로 전입한 안종영 실무관. 바뀐 환경과 업무에 적응 중이라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새 근무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맡아 진행하고, 다양한 동호회에서 활력 넘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요즘 더없이 행복하다. 게다가 스타일링룸에서 자신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으니 올해는 왠지 기분 좋은 시작이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의 안중영 실무관입니다. 2014년 7월 11일자로 법원에서의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민사과에서 1년 근무하고 난 후 지금의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처음 발령받았던 곳은 종합민원실이었고, 맡은 업무는 약식이었지요. 6개월 후 제증명 발급 보조를 맡다가 올해 1월 이곳 민사합의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이며,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 남들은 일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법원이 제 직장이라는 것이 새롭고 뿌듯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민사 재판을 보조하는 일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각종 신청서를 결재 올리고 처리하며, 각종 문건과 통지서 및 결정문 등을 송달하는 업무입니다.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중간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종 문건들을 송달하여 서로 의견교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관여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어떤 일들로 바쁘신가요?

올해 전입해왔기 때문에 우선 적응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할 때 적극적이고 완벽히 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모든 사건들의 진행과정이 제 머릿속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재판부의 실무관이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 가끔 민원인들에게 감사인사를 받는데 그때 기쁘고 뿌듯합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어떤 이야기가 이슈인가요?

같은 과 동료들과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여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친한 동기들이 많아서 가끔 동기들과 만나서 수도도 떨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 남자 동기를 만나면 소개팅이나 결혼이 주요 이야기 소재가 되고 있네요. 또한 요즘은 45기 신규 후

배들의 전입 소식이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령받고 정신없이 일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46기 신규 직원들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즐기는 동호회 활동이 있으신가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호회가 다양하고 활발해 정말 매력 있는 법원입니다. 다른 법원 직원들이 이곳으로 전입해 온다면 꼭 동호회 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탁구, 볼링, 수화, 테니스 등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탁구 동호회에서는 부총무를, 볼링 동호회에서는 총무를 맡을 정도로 동호회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조용한 편인데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활달해집니다. 모든 일에는
열정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죠.”





평소 성격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평소 조용한 편인데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방언이 터진 듯 활달해집니다.(웃음) 모든 일에는 열정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죠. 워낙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선호하는 최신영화가 나오면 거의 일주일 안에 다 봅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영화를 보면 풀립니다. 또 제가 믿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것도 힘들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즐거 입는 패션 스타일은 어떠한가요?

캐주얼 정장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고요. 종합민원실에 있을 때는 복장에 제한이 없었지만 민사합의과로 전입한 후에는 목요일에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꼭 정장을 착용합니다. 회사에 주로 입고 출근하는 옷의 스타일과 평소 스타일도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캐주얼이나 캐주얼 정장 스타일을 즐겨 입고 특히 겨울에는 셔츠에 니트를 매치해 입는 스타일을 즐기는 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제게 어울리는 패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 스타일링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제가 맡은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가족의 건강과 가정 내 평안이 가득했으면 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타일링룸 촬영하면서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신선하고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참여하신 스태프들과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 좋았고요. 독자 여러분도 새해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타일링
Tip

패션스타일 포인트

추운 날씨에는 포근한 느낌의 컬러와 질감을 활용하세요!

세미룩은 추운 겨울날씨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아이보리 컬러의 터틀넥과 체크무늬 자켓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했고 캐주얼에는 밝은 색 상의와 평기한 느낌의 진으로 경쾌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또 평소 입지 않으셨던 클래식한 더블슈트에 보타이와 행커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_권연화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포인트

더블슈트에는 올림머리보다 썸표머리가 젊어 보여요~

피부톤을 한 톤 밝게 해 깔끔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미룩에서는 켄을 살짝 넣어 세련미를 더했고, 캐주얼에서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더블슈트에는 자칫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올림머리보다는 가르마로 썸표머리를 표현했습니다.

_이혜리 뷰티 아티스트



가나에서 온 서울 오빠, 오철희

방송인 샘 오취리

한 방송에서 한국을 '우리나라'로 표현하고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는 이미 한국인이 다 됐다. 한국을 한국사람 못지않게 잘 알고 좋아하기에 더없이 친근한 방송인 샘 오취리, '오철희'라는 한국이름도 가진 그의 한국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나도 모르게 한국 자랑이 술술 나와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외국에 가서도 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샘 오취리는 한국과 단단히 사랑에 빠졌다. 그가 가나에서 진행했던 방송이나 인터뷰만 봐도 방송 내내 한국 얘기로 흥겨운 그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어눌하면서도 외국인답지 않은 추임새로 한국말을 구사하며 재치 넘치는 끼를 보여주어 요즘 한국도 샘 오취리에게 빠져들고 있으니 어찌 보면 그 혼자만의 짝사랑은 아닌 듯하다. 한국과 샘 오취리, 샘 오취리와 한국, 어찌다 서로 좋아하게 됐을까?

일주일 만에 가방 싸고 1만2640km 날아 한국으로 샘 오취리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고 1년간 언어연수와 4년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유학생 자격으로 2009년 가나에서 한국에 왔다. “전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한

국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다고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 순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에서는 보통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아시아대륙, 그것도 한국에 오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꾀본 일이죠.”

한국으로 떠나는 일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일주일 만에 가방을 싸고 그는 한국으로 날아왔다. 워낙 가족과의 유대감이 돈독하고 그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온 아들이자, 손자, 오빠, 형이었던 그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만2640km나 떨어진 한국을 오기로 결심했던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 기회를 잡아 성장하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가나에서 온 20





“학교가 필요한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요즘에 젊은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없을까 찾고 있어요.”

살 청년 샘 오취리에게 한국은 여러 모로 많이 낯선 나라였다.

“공기부터가 달랐다고 할까요? 완벽한 이방의 환경이었어요. 한국 올 때 워낙 후다닥 떠나오느라 몰랐는데 와서 두어 달 지나다 보니까 슬슬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곁에 없구나, 외롭다, 돌아가고 싶다...”

한국어선생님 예뻐 데이트 신청 목표로 ‘열공’

한국에 와서 최초 1년은 한국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장학 프로그램대로 한국어학당에서 랭귀지 코스를 밟으며 처음 한국어를 접했다.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였다.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레벨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레벨테스트를 받는 거였죠. 거기 온 친구들 중에 중국인, 몽골인, 일본인도 있었는데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만큼 제게는 새로운 환경이었어요.”

한국어학당의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에게 멋지게 데이트 신청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품고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렸다. 수업 후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께 질문하고 말을 걸며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대학생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어수업 후에는 한국 대

학생들과 밖으로 나가 영화를 보거나 쇼핑, 식사, 여행 등의 시간을 가지며 한국어 실력을 키웠다.

어학당에 중국인 친구가 많았던 탓에 중국어를 먼저 배웠다고 웃으며 말하는 샘 오취리는 처음 말이 통하지 않던 시절 몇몇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 무시하거나 차별, 이상한 질문으로 당황할 때도 있었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은 오취리의 팔을 혀로 핥으며 “맛없다, 초콜릿 묻은 게 아니네”라는 아이도 있었다고.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그냥 웃고 지나쳤지만 흑인을 대하는 차별적



시선은 그에게도 상처가 되곤 했다.

‘흑인 친구’ 아닌 그냥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대학에서의 수업이었다. 생활한국어 위주였던 그동안의 한국어공부와 달리 어려운 공학 용어를 한국어로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에게 술로 친해지는 MT 문화도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는 벽을 만들게 했다. 친구들은 다가오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 와중에 제 곁에 와준 고마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과제며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잘 끝마칠 수 있었죠.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동아리도 들어갔는데 흑인음악 동아리였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흑인이 한 명도 없는...”

동아리에서 친구를 사귀고 홍대에서 공연도 하는 등 학교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도움을 주었던 한국친구는 캐나다로 1년 유학을 가게 됐는데 1년 후 한국에 돌아오던 날 샘 오취리를 보고 달려와 얼싸안으며 외국인이 되어보니 오취리를 더 이해하겠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이후 그 친구와는 더 친해졌어요. 흑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된 거죠. 피부



색의 벽이 사라졌고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가나에 있을 때부터 춤과 노래, 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위와 같은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2013년 우연히 KBS 2TV의 예능 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것이 방송 출연의 계기가 되어 ‘개그콘서트’, 그리고 그를 가장 많이 대중에게 알린 2014년 ‘비정상회담’, 2017년 ‘미운 우리 새끼’ ‘몽쳐야 뜬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tbs eFM ‘맨온에어’의 DJ로도 활약 중이다. 호주 출신 샘 해밍턴과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웹예능 채널인 ‘투스앰티비’(TwoSamTV)를 열고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나에 세운 572학교, 한국에도 노인 위한 일 하고파

방송활동과 함께 그가 늘 꿈꾸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다. 2016년에는 고향 가나에서 뜻 깊은 활동도 진행했다. 월드비전과 함께 1년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5000명의 후원을 받아 그의 이름을 딴 ‘572학교’를 설립했고, 내년쯤 제2의 572학교 설립도 계획 중이다.

“가나뿐만 아니라 학교가 필요한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샘 해밍턴 형님과 매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예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한국에 젊은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572학교 개교식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통해 자신은 역시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봉사할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는 가나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꿈과 포부를 품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은 책과 다큐멘터리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다. TV와 영화에서 외국인 배우가 아닌 한국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곧 있을 한국의 대명절 ‘설’을 맞아 샘 오취리에게 고향 가나어로 덕담한 마디를 청하자 잠시 머뭇거린다.

“아, 잠시만요. 요즘 가나어가 핫갈려요. ‘odo ne ntease’(어더 느 은 트아세), ‘사랑과 이해함’이라는 뜻이에요. 2018년은 모두에게 사랑과 이해, 배려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고향에 다녀올까봐요~”

겨울철 달갑지 않은 손님

독감



희망찬 무술년 새해, 그러나 겨울철이면 우리나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험겨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독감을 예방하고 유행을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글 윤창옥(윤창옥 내과의원 원장)



독감과 감기의 차이

최근 병원마다 대기실이 감기와 독감 환자로 시끌벅적하다. 요즘은 감기와 독감이 다른 병이라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감기와 독감을 혼동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진료실에선 감기가 의심되는 환자들에게는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감기가 왜 걸렸냐며 따지는가 하면,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막무가내로 감기약만 처방해달라며 독감검사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

감기는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환이다. 따라서 현재 감기에 대한 예방접종은 없으며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은 매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달리 독감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며 3~4일 지속되는 고열, 오한과 더불어 극심한 근육통을 동반한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구조나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A형, B형, C형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A형과 B형이다. A형은 표면에 있는 헤마글루티닌(H)과 뉴라미데이즈(N)라는 단백질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뉘며 H의 종류는 16가지, N의 종류는 9가지이다. 이들의 조합으로 A형 바이러스는 144개를 만들 수 있지만(예를 들면, H1N1, H3N2 등), 이 가운데 H1, H2, H3와 N1, N2만이 사람의 독감과 관련이 있다. B형은 최초 검출된 지역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형과 야마가타형 2가지가 있다. 보통 12월에서 1월에 A형 독감이 유행하고 2~3월에 B형이 유행하나 올해는 초겨울부터 A형과 B형이 같이 유행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그해 북반구에 유행할 독감바이러스를 전년 겨울을 겪었던 남반구의 유행 추이를 반영하여 5월경 예상하여 발표한다. 올해 예상한 바이러스로 A형은 H1N1과 H3N2, B형은 빅토리아형이며 이를 기준

으로 백신회사는 독감 예방주사를 생산한다. 올해 예방접종 시 3가 혹은 4가 백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3가 백신은 A형 두 가지(H1N1과 H3N2)와 B형에서 빅토리아형을 포함한 3가지 유형에 대한 백신이며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B형의 야마가타형까지 4가지 유형을 포함한 백신이다. 올해 독감이 유행한 이유가 B형의 야마가타 계열이 주로 유행하여 3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독감 예방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추측이 있다.

독감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

첫째,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다. ‘예방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라는 선정적 제목의 책들이 서점가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독감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정성을 이미 입증한 약물이다. 그러나 독감백신은 누구나 손쉽게 접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효과를 부정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이 마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포장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가능하면 고령, 유아, 만성질환자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 기침 에티켓과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기침은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를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손으로 이용하여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은 잘못된 것이다.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런 기침 에티켓이 메르스 사태 당시 홍보가 많이 되어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어느새 다시 무감각한 상태로 돌아간 듯하다. 외출 후엔 자주 비누칠을 해서 손을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독감에 걸린 사람은 나만 걸린 것이 억울한 듯이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독감 때문에 결석한다고 학원비를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까워서라도 학원을 보내겠다고 우기는 학부모들도 있다. 대기실에 독감의심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 답답하다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독감유행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독감에 걸린 사람은 주변 동료들에게 독감이 전염되지 않도록 기침 에티켓과 개인위생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한 주변 동료들은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 편히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감은 2~3월까지의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작지만 소중한 매너 있는 행동이 필요한 오늘이다. 🍀

PyeongChang 2018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평창동계올림픽 관전 포인트

드디어 기다리던 2018평창동계올림픽(2월 9일~25일 17일간)이 시작된다. 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평창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동안 우리는 승부를 떠나 경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해 볼만한 경기와 관전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자.

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한국선수단 종합 4위 목표와 금메달 후보들

이번 올림픽에는 약 90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 사상 최다 참가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도 최다메달인 1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 선수단은 2014소치동계올림픽 파견 규모인 6개 종목 71명의 약 2배 수준인 7개 전 종목에 150명과 임원 약 150명 등 약 300명 규모의 선수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소치2014 동계 올림픽 13위(금3, 은3, 동2)로 주춤했던 한국선수단은 2010밴쿠버대회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인 5위(금6, 은6, 동2)보다 한국선수단의 메달 획득 목표도 상향 조정되어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및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2017/2018 시즌 월드컵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스켈레톤(Skeleton)의 남자 윤성빈(24·강원도청), 월드컵 1, 4차 대회 매스 스타트(Mass Start)에서 우승한 스피드스케이팅 황제 이승훈(29·대한항공), ‘쌍두마차’ 심석희(20·한국체대)와 최민정(20·성남시청)이 이끄는 쇼트트랙(Short Track Speed Skating) 대표팀이 금메달 사냥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36초36)에 근접할 만큼 페이스를 끌어올린 ‘빙속 여제’ 이상화(29·스포츠포트토)는 여자 500m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는 목표로 매진 중이다. 한국동계올림픽 원조 금메달 밭인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2월 17일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선에 출전하고 2월 22일에는 여자 1,000m 결선에 진출할 전망이다



경쟁선수로는 영국의 엘리스 크리스티 선수가 유력하다. 홈팀 한국선수단은 2월 22일~24일 벌어지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매스 스키이트 등의 결승전에서 다수의 금메달 사냥을 할 수 있는 ‘Golden Days’가 기대된다.

김연아 이을 피겨 여제는 누구? 주목되는 세계의 스타들

미국의 미녀 ‘스키요정’ 미카엘라 시프린(Mikaela Shiffrin/23)은 2017년 12월 29일 오스트리아 리엔츠 개최 2017/2018 FIS(국제스키연맹) 월드컵대회 알파인 여자회전경기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여자 평행 회전 결승에서도 웬디 홀데네르(25·스위스)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시즌 두 번째 이종목 우승을 확정 지었다. ‘스키 여제’ 린지 본(Lindsey Vonn/33·미국)과 함께 시프린은 세계 여자 알파인 스키의 양대 강자이며 본 선수를 위협하고 있는 선수로 각종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스키 천재’로 주목 받고 있다.

알파인 스키의 5개 종목 중회전(Slalom)과 대회전(Giant Slalom)은 기술발휘로써 메달 색깔이 달라지며, 활강(Downhill)과 슈퍼 대회전(Super Giant Slalom)은 슬로프(Slope)를 빠르게 타고 내려오는 스피드로 승부를 가린다. 복합(Combined) 종목은 회전과 활강의 기록을 합해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라이벌인 본 선수는 스피드 경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프린 선수는 이번 시즌 FIS월드컵 5승(회전 2승, 대회전 1승, 활강 1승 포함)의 경력

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5개 종목인 활강(Downhill), 슈퍼대회전(Super Giant Slalom), 회전(Slalom), 대회전(Giant Slalom), 복합(Combined)을 모두 석권 가능한 선수로 전망된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김연아 이후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Evgenia Medvedeva)가 고혹적인 연기로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자 싱글에서는 일본의 하뉴 유즈루와 우노 쇼마, 스페인출신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그리고 미국 출신 네이션 쉐이 곡예를 방불케하는 ‘4회전 공중점프전쟁’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주목해볼 만한 이색 출전 팀

육상선수 출신인 아디군(30세)을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여자선수 3명이 아프리카 최초로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에 출전한다. CNN이 주목하라고 강조한 팀이기도 하다. 열대지방인 서인도제도 자메이카 육상선수들이 1988 캘거리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 출전, 그들의 도전기를 담은 영화 <쿨러닝>과 같은 이야기가 평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됐다.





법원 사람들 원고모집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장생활, 업무 속 에피소드를 담은 '나의 일 나의 삶' 코너와 취미, 여가, 생활 등으로 생활 속 이야기를 담은 '테마가 있는 글'에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룸'에 참여해 주신 분께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이내
- 원고 마감: 수시 보내실 곳: 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courtkorea/>

지난 호 퀴즈당첨자

이성곤 행정관 법원행정처
김윤희 실무관 상주지원
김영범 실무관 특허법원
오수진 참여관 성남지원
김태균 행정관 서울가정법원

지난 호 퀴즈정답



다른 그림 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표시한 후 사진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법원사람들@scourt.go.kr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과
엄효섭 행정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세 들어 사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늦은 시간인 줄도 모르고 밤늦게 부천지원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 분이 전화를 받아서 제가 경매 절차를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은 상황이 되면 겁부터 먹게 되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자꾸 확인하며 횡설수설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당직실에 근무하던 엄효섭이라는 직원 분이 너무도 차분하게 끝까지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임차인의 권리신고를 잘 할 수 있었고, 그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2017. 11. 고○○

정신병원, 요양소 등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면 전화하세요



구출구출 인신보호제도

16619797
인신보호제도안내전화



| 인신보호제도 |

타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인신보호제도 안내전화 |

1661-9797 전화 한 통으로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편리하게 안내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인신보호제도 청구자격 |

시설에 갇힌 본인(피수용자) 외에도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가 전화를 하면 인신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